

제8기 4차 집행위원회

2003. 9. 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전화 / 256-0092, 전송 / 252-6976, www.cham.or.kr

<19:30~19:35>

■ 개 회

■ 회원생활문화규범 낭독

-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습니다.
-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해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만납니다.
- 우리는 한 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 우리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합니다.
- 우리는 자율적으로 모임에 참여합니다.

<19:35~20:00>

- 지방분권 관련법안 주요골자 및 추진전략방안 / P 22
박상우(기획국장)

<20:20~20:30>

■ 참석자 인사

<20:30~21:00>

- 활동일지 및 주요활동보고 / P 2
■ 동향보고 / P 7
■ 승인검토안건 / P 10
■ 논의안건 / P 17

<22:00~22:10>

■ 광고 및 폐회

I 활동일지

<8월>

- 8 집행위원회
산내대책회의 정례모임
시민정치네트워크 수련회(동학사)
- 9 대전충남 8.15통일축전(서대전시민광장)
- 10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11 주간회의
- 12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회(여운철 변호사 사무실)
통합연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
- 13 지방분권대전본부 7차 운영위원회
박녕쿨 실무자 간담회(김제선 사무처장)
신행정수도 관련 기관단체 비공개회의
지방분권특별법 인터넷 토론회
- 14 여성환경포럼 운영위원회
지방분권관련 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서울)
- 17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18 주간회의
사무처 건강검진
문화모임
- 19 민주당도박장기획단회의 참석(도박장반대전국네트워크, 서울)
배제대 총장 초청 지방분권대전본부 대표자 간담회
- 20 BRT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론회(시청, 버스사랑시민모임)
- 21~23 지역운동연대 하계수련회(대둔산, 45명 참석)
- 24 늘푸른축구단 정례모임
- 25 주간회의
보행환경회의 참석(금홍섭 국장, 시청)
균형발전 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시청)
용두동 철거민 기자회견(박상우 국장, 중구청)
홍명상가 철거 관련 질의(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원범 선거법위반 3차 심리(박상우 국장, 법원)
법원친절도 모니터 결과 발송(유성미 국장)
집행위원회 공지(유성미 국장)
- 26 창원 시내버스 활성화 및 BRT시스템 도입 토론회(금홍섭 국장 주제발제, 창원)
분권전략회의(특별법 제정 추진결의, 대전)
활동가협의회 2차교육 준비모임

- 27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토론회(서울)
 - 여성환경포럼 토론회(여성정치참여 토론회 개최 -제도개혁과 여성의 정치진출 제기)
 - 신원식 대전MBC 노조위원장 간담회
- 28 대전시 2004년 예산편성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시청)
 - 목원대 심재호 교수(복지포럼 정책위원) 내방, 사무처 격려
 - 대전연대 운영위원회(김제선 사무처장)
 - 문화모임(사무실)
- 29 전국연대회의 총선대응 워크숍(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김제선 주제발표
 - 지방분권국민운동 전략회의(서울) -김제선
 - 여성환경포럼, 충청지역 연찬회(유성 유스호스텔) -유성미
 - 소식지 '참여와자치' 발송
- 30 주부모임(유성미국장, 유성)
 - 문화모임 금산인삼축제 모니터
 - 김난희 회원 개업식, 여인철 회원 후원회(서울)
- 9/1 주간회의
 - 주부교실 이숙자 사무국장 사무처 실무자 석식
- 1 4차 집행위원회(기독교봉사회관)
 - 버스사랑시민모임 실무자 모임

I 주요활동 보고

1. CMS회원 및 재정보고 / 생략(다음회의시 보고)

2.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요>

- 일시 / 2003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내용 /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토론회였다는 평입니다. 70여명의 관심있는 분들이 참석했으나 언론 등으로부터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박장 동향>

- 대전경륜장 관련 동향 : 중앙일간지 “원점에서 재검토” 보도
- 문광부장관 질의문에 대한 일부답변서 도착 : 신중하게 검토처리 하겠다는 입장

3.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활동일지>

- 8/13 지방분권대전본부 7차 운영위원회
신행정수도 관련 기관단체 비공개회의
지방분권특별법 인터넷 토론회
- 14 지방분권관련 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서울)
- 19 배제대 총장 초청 지방분권대전본부 대표자 간담회
- 25 균형발전 토론회(김제선 사무처장, 시청)
- 26 분권전략회의(대전)
- 28 수도권 공장허가 철회 성명발표
- 29 분권전략회의(서울, 김제선 사무처장)

<지방분권 전략회의 결과>

- 분권관련 특별법 입법화를 위한 대국회 대응 : 전국, 지역 차원에서 본격 추진키로.
- 대전본부에서 국회의원 설문조사 초안을 작성키로
- 대전본부 자체활동 계획
 - 1) 3대입법 추진을 위한 간담회(기초의원 / 광역의원 / 구청장,시장) 각각 개최
 - 2) 지역국회의원과 간담회 추진(동시에 신행정수도특별법 입법화 서약식도 개최)

<운영위 회의결과>

- 일시 : 2003. 8.13 오전 7시
- 장소 : 큰집설령탕
- 참석 : 안성호, 박재묵, 구노회, 이석봉, 이숙자, 김경희, 장현자, 임헌균
박상우, 염대형
- 활동보고 및 재정보고(첨부자료 참조)
 - 회비납부에 대해 전차 운영위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기로 함.
 - 민병무 공동대표에게는 회비납부요청한 문건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200만원)
 - 주부교실 이숙자 국장 10만원 직접납부함.
- 안건심의 결과
 - 1.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검토 건
 - 1) 이재은 정책위원장이 작성한 최종 수정본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함.
 - 2) 지방대학육성특별법에 대해서는 자원만을 지원하는 법은 타당성이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며, 대학의 지구책과 대학 자주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 3) 박재묵과 구노회 공동대표가 지방대학육성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대전본부가 회람한 후에 국민운동 본부 측에 전달키로 함.
 - 2. 대국회 활동 및 국민참여대행진 건
 - 1) 전국사업과 맞물려 추진키로 함.

- 2) 국민참여대행진에 대해서는 추진 주체인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키로 하고, 시장, 시의회의장, 대학총장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키로 함.
- 3) 세부사항은 사무국에서 별도의 계획서를 작성키로 함.(인원동원에 있어 한발문화제 등과 일정이 겹쳐있으므로 고려해 줄것을 요청함)

3. 배재대 정순훈 초청, 대표자회의에 적극 참여키로 함.

4. 지방분권국민운동 영어명칭 확정의 건

대전본부에서는 1안) Decentralization for Sustainable Korea, 2안) Civil Action for Decentralization 중에서 2안을 선택함. 약자로 CAD로 사용할 것을 본부에 제안키로 함.

5. 대전본부 사업자 등록신고에 대해 추진키로 하고 대표는 안성호 대표로 정함.

6. 2차 지방분권포럼, 지역혁신협의체 워크숍, 신행정수도관련 TV토론회 추진의 건

- 1)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보고한 후 적극 추진키로 함.
- 2) 지방분권포럼 주제는 신행정수도에서 지역혁신협의체 내부워크숍으로 대체키로 함. 지역혁신협의체 대토론회(성경룡 초청 등)는 별도로 진행키로 함,
- 3) 사업비는 포럼은 대전시개발위원회 측 100~150만원, 나머지 부분은 안성호 교수가 어느정도 알아보겠다고 함.

7. 기타 의견

- 1) 지방분권 학교(아카데미) 개설
 - 활동가 및 단체회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여성, 주민 등 분권에 대한 이해정도가 매우 미약하므로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획안을 작성, 19일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2) 주민의 실질적인 공감을 얻기위한 의견들...
 - 이석봉 운영위원은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임. 즉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제시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 지역혁신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 사무국장이 설명함.
 - 구본회 공동대표는 충청권에서 관심있는 신행정수도와 연계하여 지방분권의 아젠다 설정이 필요함을 역설
- 3) 26일 염시장의 지방분권 대전선언 관련
 - 기사에 따르면 염시장의 지역혁신협의체 구성 등에 있어 산학연이 중심이 되어있고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되어 있는 바, 이에대한 대응도 필요함을 제기.
 - 안성호 교수 등 대표들이 시장 면담을 통해 풀어가기로 함.
- 4) 행법련 최근 기사 관련
 - 특별법에 이전지역 명기 및 추진일정을 삽입하라는 행법련 주장은 법리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근시안적 사고임을 설명
 - 최근 추진기획단 측에서는 행법련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숙자 국장에 의하면 자문위 지역분과위에서도 앞서 설명한 대로 말도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함.

4. 총선대응 및 정치개혁시민연대 구성 추진

<활동일지>

- 8/9-10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 발기인 및 전국수련회(동학산장)
- 14 정개런 준비위 상임운영위원회
- 28 사무실 이전개소 및 정개런 준비위 상임운영위원회

<활동개요>

- 사무실 이전개소 / 중촌동 여민회 건물

5. BRT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언론 등 많은 관심속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 이후에도 BRT시스템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형성되는 등 BRT시스템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03년 8월 20일(수) 오후 2시~5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 주 최 / 대전버스사랑시민모임

<BRT시스템 도입논란>

- BRT시스템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 형성
- 도시개혁포럼(이인혁) BRT도입 반대 토론회(9/4) 개최
- 염시장 지시로 11명으로 구성되는 『BRT연구포럼』 구성추진중
- 전국적으로 창원, 전주, 울산 등에서 BRT시스템 도입 토론회 및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음.

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하계 워크숍

=> 지역운동연대 소속 11개단체 45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일 시 / 2003년 8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 장 소 / 대둔산 진산 자연휴양림
- 주요내용
 - 2004년 총선대응 토론
 - 시민운동과 도시 특강(강현수 중부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도시개혁의 첫걸음, BRT시스템 도입 특강(김기준 교통환경연구소 부소장)
 - 소통과 조직민주주의 특강 및 토론(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 대둔산 등반(이재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산모임 회장)

7. 회원모임 활동

- 늘푸른축구단
 - 주부모임 / 신임 임원선출(회장/신선화, 총무/신정미)
 - 문화모임 / 한밭문화제 축제감리 관련 충남대 강연회 추진
 - 등산모임
8. 참여와 자치(월간지) 및 e-참여자치(사이버 주간소식지) 발행
- 참여와 자치 / 9월호 발행
 - e-참여자치(사이버소식지) / 68호 발행. 매주 1회 발행중
9. 각종 발표 보도자료
- 수도권내 대기업공장 신증설제한제도 철폐 검토 철회요구 성명(대전지방분권본부) / 별첨

I 동향보고

1. 예정일정

- 8/ 3 정치개혁연대 총선워크숍(7시30분, 여민회)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의원회관)
- 9/ 3 지방분권 국회의원연구모임, 분권자치포럼21과의 토론회(서울)
- 9/ 4 MBC시사레이더 녹화(자치단체장 총선출마 이대로 좋나) -박상우
교통규제심의위원회(금홍섭, 2시 경찰청)
- 9/ 5 지방분권협의회 9차운영협의회(공주)
- 9/17 대전분권본부 연찬회
- 9/18 참여연대 후원의 밤(서울)
- 9/24 문화모임 주최 강연회(세부계획 미정)
전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련회(~25일, 목포)
리더쉽교육(~26일까지, 유성미 국장참석, 서울)
- 9/26 처장단회의
대전연대 활동가협의회 전체모임(~27일)

2. 주요동향

- 대전시에산편성토론회 : 참가범위의 축소 속에서 활력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음
- MBC노조 신원식지부장 미팅 : 지방분권대전본부 참여 활성화 및 TV토론회 등 논의, 또한 일상적업무에 대해서는 노조 대외협력부장이 결합키로(어느정도 성과있었음)
- 대전일보 : 구 중도일보 건물로 이전, 제2 창간 선언

- 충청매일 : 중도일보와 통합후 재호를 『중도일보』로 통합발간

-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대전 근교 이전 보도(대전일보) 사실관계

- 지난 2월 장영달 의원이 미국 방문, 월포비츠 국방부부장관(럼츠펠트 장관 바로 밑)과 미팅하여 당시 부장관에게 들었던 이야기이라고 함.
- 장영달은 이 이야기를 SBS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음.
- 지휘부는 평택, 오산 근교에, 전투병력은 대전 근교지역으로 재배치 가능성 있음.
- 8월 31일 MBC 시사프로에서는 천안이 거론되었음(천안 성안읍 종축장 지역)

- 용두동 철거민 관련 동향

- 어제(1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분양 참여 밝히고, 가수용단지 수용기로 함. 문제해결의 가능성 높아졌지만 주공과 주민사이에 특별분양 대상과 가수용단지 입주자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음. 공대위는 앞으로도 중구청 앞에서 계속 투쟁을 전개기로 했으며, 전국적인 조직화로 제도개선운동에 주력한다는 입장임.
- 지난 26일 계고장 후 28일 중구청 강제철거
- 최근 시장,주공사장,주민대표,김규복목사 비공개회의 가졌으나 대전시의 유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공입장 변화없었다고 함.
- 대전시의 경우 시예산을 지원하여 용두지구내 가수용단지 건설을 약속함.
- 우리단체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개선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함.

- 국정원, 시민단체 백령도 초청 안보시찰 요청(대전연대)

=> 대전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안보관련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수정제의기로 결의함.

- 국정원 들러리 사업에는 불참? 변화된 모습에 부응하여 참석? 양론 있음.

- 1) 관변단체와 함께 하던 것을 시민단체에 제안해 온 것은 변화된 징조, 부응해야?
- 2) 현재 사회운동단체의 탄압과 맞물려 참석할 경우 부작용 문제.
- 3) 이 사업 참가여부 논의이전에 국정원의 통일평화정책 등 공동간담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에서 모아진 입장.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 일 시 : 2003년 7월 28일 오후 4시~ 5시
- 장 소 :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 사무실
- 참석자 : 김광식, 박용남, 박정현, 김제선(이상 4명)
김혜천, 윤오섭, 이광진(이상 3명 위임)
- 추가 공모사업 선정
 - 환경운동연합 하천해설가 양성 프로그램 : 사업비 200만원 선정
 - 여성분과 사업비 지원 문제 :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하되, 여성의제에 적합한 의

제발굴과 여성분과의 내부 토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여성분과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로 재작성 제출 요

- 2004년도 사업계획

각 단체에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8월 20일까지 제출요청하고, 제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함

- 기타안건

2003년도 9월 추경에 반영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8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공지하고, 사무국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이버 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함

여성분과 위원장(김용분위원)을 상임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결의함

II 보고 및 검토안건

1. 추석물품 판매 경과보고의 건
 - 홈페이지 안내 및 게시판 개설
 - 판매실적 보고 / 유국장 보고
2. 새회원 확보운동 경과 보고의 건
 - 주제 / “민들레 홀씨를 찾습니다”

<준비일정>

9월 5일 / 선정된 137명에게 행사취지 및 활동안내 우편물발송
9월 8일 / 홈페이지 「민들레 홀씨」 자유게시판 띄우기

- 활동기간 : 9월 15일~10월 31일(46일간)
- 집중관리 : 1차 안내전화(9월 15~27일)
- 2차 활동독려전화(~10월 31)
- 3차 감사 및 지속활동독려 전화(수시로)
- 진행사항 주1회 E-mail 발송보고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의견 주고받기...

3. 어린이 도서관 사업 추진 승인의 건
 - 승인내용 / 아래와 같은 어린이 도서관 사업을 위한 워크샵 개최 등의 추진을 주부모임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어린이도서관 자원운영가 배출을 위한 1차 워크샵
 - 대상 : 주부모임 일원 및 관심 있는 회원으로 구성(15인 이내)
 - 기간 : 9월 23일~12월 30일(격주 1회, 화요일 오전10시~12시)

<제1강> 9월 23일(화) / 어린이책 어떻게 볼 것인가

- 어린이 책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짚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제2강> 10월 7일(화) / 어린이 책 실태

-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책의 출판, 작가 등

<제3강> 10월 21일(화) / 그림책 어떻게 볼 것인가?

- 좋은 그림책 선택방법과 아이와 함께 하는 방법

<제4강> 11월 4일(화) /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 옛날 이야기의 중요성, 들려주기

<제5강> 11월 18일(화) / 어린이 도서관 견학(용인 수지 느티나무도서관 예정)

<제6강> 12월 2일(화) / 어린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제7강> 12월 16일(화) / 어린이 도서관의 자원활동과 전망

<제8강> 12월 30일(화) / 총평가

4.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보육조례제정 및 홍명상가 대응 보고의 건

1). 대전광역시보육조례제정에 관해

대전광역시보육조례 법안소위원회(작은권리 집행위원 2인, 대전여민회 2인)을 구성하여 1차안을 만들고, 다음회의 때 검토하여 최종조례안을 만들기로 논의함. 법안소위원으로 여운철(공익소송분과장), 김두현(신임집행위원 내정자)이 맡기로 결의함. 대전여민회, 공부방연합회와 의견수렴 하고 보육조례안 제정운동을 연대하기로 함.

2).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하천점용료 61억 미납에 관해

대전광역시에 질의설 발송해 답변을 듣고 대응기로 함.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하천점용료 현재까지의 집행현황과 집행이 안된 이유, 최초의 계약내용, 임대료와 투자공사비(원금)의 계산여부 등 내용을 주요골자로 질의서(8/25일 발송)를 보내기로 논의.(대전광역시의 답변서 내용에 따라 활동계획을 논의기로 함.)

5. 3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록 보고의 건(2003. 8. 8 대학학원 회의실)

■ 개 회

■ 회원생활문화규범 낭독

■ 참석자 / 고제열, 김형돈, 조병제, 김용세, 김봉구, 장은령

민명수, 김선건, 김제선, 이제화, 이은구, 최정우, 이현주

■ 활동일지 및 주요활동보고 / 회의자료 참조

■ 동향보고 / 회의자료 참조

■ 보고 및 승인안건 검토

1. 지역현안 대책활동 및 경과에 대해 보고하다.

■ 송강동 수해 관련 대책활동

- 배경 / 7월 8일 많이 비가 왔을때 송강동 일대에 물난리가 났는데 대전시가 수문을 열지않아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라 대책을 강구하게 됨.

- 경과 / 사안에 대해 자료수집 및 주민들을 접촉하고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의 주민들을 만나 보상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임.

■ 중앙데파트 관련 대책활동 /

- 배경 / 8기 3차 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안

- 경과 / 관련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중앙데파트 및 홍명상가에 대한 철퇴운동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 및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 도박산업 실태 및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토론회 개최 준비 보고의 건

- 일시 / 2003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대강당

- 사회 / 이충제(대전YMCA 사무총장)

- 주제발제 1 /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실태와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주제발제 2 / 이우갑 신부(고한천주교회)
“사행산업에 따른 도박중독자 양산 및 지역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주제발제 3 /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참여정부의 사행산업 개편방향”
- 토 론 1 / 민주당국회의원 1인(문광위 소속)
- 토 론 2 / 한나라당국회의원 1인(문광위 소속)
- 토 론 3 / 광주참여자치21 사무처장
- 토 론 4 /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전문의
- 토 론 5 / 권병희 단도박 회원
- 토 론 6 / 권시형 민주당 체육정책위 기획단

3. BRT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추진 보고의 건

- 일 시 / 2003년 8월 20일(수) 오후 2시~5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
- 주 관 / 대전버스사랑시민모임
- 주 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후 원 / 대전광역시, 충청하나은행, 대전KBS, 대전MBC, TJB대전방송, CBS대전방송
CMB충청방송, 대전일보, 대전매일, 오마이뉴스, 디트뉴스
- 세부계획
- <제 1 부>
- 접수 및 방명(~14:00)
- 환 영 사(14:00~14:10) 박용남 대전버스사랑시민모임 공동대표
이원설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 축 사(14:10~14:20)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이은규 대전광역시의회회장
- 주제발제 및 토론자 소개(14:20~14:30)

- <제 2 부> 사 회 / 김제선 사무처장
- 주제발제 1 (14:30~14:50) : 김경철 서울시 버스개선팀장
BRT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 - 도시교통문제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 주제발제 2 (14:50~15:10) : 김기준 박사
국내외 BRT시스템 도입사례와 전망 - 사례보고를 중심으로
- 주제발제 3 (15:10~15:30) : 권선희 목원대 교수
도시개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토 론 (15:30~16:20) ·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1인
·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과장
· 기자 1인
·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1인
· 박정현 녹색연합 사무처장

4. 지방분권운동 양대법안 발표 및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대응 전략 추진보고의 건 => 회의자료 참조

5. 기타 연대사업 제안요청에 대한 검토승인의 건

=> 원안에 대해 승인하다.

- 한충련 이적규정철폐와 정치수배자 전원해제를 위한 공동성명 요청
-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과 제도개혁을 위한 서명요청

6. 8기 3차 집행위원회 보고의 건 / 회의자료 참조

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7월 집행위원회 회의록 보고의 건 / 회의자료 참조

■ 안건토의

1. 2004 총선대응에 대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활동방향 검토의

=> 참여자치연대 조직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이후 유동적인 상황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유권자운동의 기반을 다지고 준비하도록 한다.

- 주문사항 / 2004총선 대응 연대회의 역할에 관한 토론자료를 첨부하오니 우리 단체의 총선대응 활동기조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회의자료 p12~19

2.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2004년도 사업계획 신청에 따른 공모사업 참여여부의 건

=> 원안대로 승인토록 하다.

- 주문사항 / 대전의제21에서 각 단체에 2004년도 사업계획서와 9월 추경에 반영할 사업계획을 8월 20일까지 제출요청하는 등 점차 2004년도 사업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모사업 참가에 대한 우리 단체의 입장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 민족공동행사 대전총남 준비위 참여 검토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다.

- 주문사항 / 별첨된 내용과 같은 2003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대전총남 준비위 참여요청에 대해 검토의결 바랍니다.

- 별 첨 / 회의자료 p20~22

4. 회원확대방안 검토의 건 ; 희망지기단

=>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회원사업위원회에서 검토기로 하고, 원안대로 추진기로 하다.

- 주문사항 / 별첨된 내용과 같이 2003년 새회원만들기에 주력하기 위한 (가칭) 100인 희망지기단 기획안을 제출하오니 검토의결 바랍니다.

- 별 첨 / 회의자료 p23~24

5. <참여와 차지> 소식지 기획안 검토의 건

=> 원안대로 추진기로 하다.

- 주문사항 / 별첨된 내용과 같이 참여와 차지 소식지 발행에 대한 새로운 기획안을 제출하오니 검토의결 바랍니다.

- 별 첨 / p25~26

6. 기타안건

1) 추석 수의사업 추진의 건

=> 3차 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추진기로 하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역 오피니언 리더 이메일 주소 제공 요청에 대한 처리의 건

=> 개인정보에 대해 누출은 불가함으로 부결기로 하다.

- 주문사항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를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제공 한다는 취지로 우리 단체 주요인사들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이에대한 검토의결 바랍니다.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실 이전검토의 건

=> 사무실 이전 추진을 승인으로 하다.

4) 집행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 정례모임 변경의 건

=> 둘째주 화요일로 옮겨 정례모임을 갖는 것으로 하다.

단, 9월 정례모임은 9월 2일로 모임을 갖기로 하다.

6. 대전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의 건

- 전교조 징계 공대위 구성 제안이 건/네이스공대위를 만들었는데 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네이스 공대위가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단체는 민주노총이 담당토록함.
- 여민회의 호주제 공대위 참가 요청의 건/참가키로하고 간사단체로 여민회가 감당키로하고 재정부담은 없음을 확인함.
- 국민연금토론회 개최의 건/ 파행적 국민연금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대전연대 주최로 개최키로하고 복지포럼이 주관하기로 함.
- 예산편성토론회/대전연대 주최의 실무력의 제약,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관심있는 단체들간에 협의하여 추진토록함.
- 국정원 안보유적지탐방/ 대전지역에서 안보관련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수정제의키로함.
- 총선대응 워크숍 개최/ 정치개혁시민연대준비위와 대전연대가 공동으로 9/3 19시 여민회에서 개최키로 하고 최대한 참여를 추동키로함.
- 활동가학습 / 활동가협이 자체적으로 추진키로하고 '나무를 심는 사람들'라는 단체의 활동가 연수관련 제안에 대해서는 활동가협에 통지 직접 협의토록 함.
- 시민정치네트워크의 시민운동정당 논의에 대한 의견/ 대체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공유되고 ,심부른 추진이 다른 정치개혁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토론했.
- 정기국회대응/총선대책워크숍에서 김제선의 발제문에 개혁입법 강제를 위한 대책활동 방안과 일정을 포함하여 논의키로함.

7. 참여와 자치 소식지 9월호 발간 보고 및 평가의 건

- 소식지 / 한남대, 목원대 광고로 1100부, 칼라 제작
- ▷ 회원서비스 차원을 넘어 소통과 참여로의 지렛대 역할(회원 커뮤니케이션 역할 참여 증진)
 - 독자위원회 구성 또는 회원기자 모집
 - 회원기고, 회원탐방, 업소탐방, 회원엽서 등
- ▷ 디자인은 깔끔하고 미백의 묘를 살리되, 보다 새롭고 참신한 쪽지를 강화
 - 편집디자이너 또는 기획사(인쇄소) 확보, 옵셋인쇄(기존 제작가 수준에서)
 - 쪽지의 섹션화 등 변화 시도
 - 장기적으로는 담당 간사(소식지 및 웹관리자) 확보
- ▷ 다양한 층의 참여
 - 다양한 필진 구성 -추천 및 발굴
 - 소통과교육위원회 역할 제고
- ▷ 홍보강화
 - 무료배포 확대 : 공공기관, 도서관, 은행 등
- ▷ 독자적 재정 마련

- 광고협찬 공문발송 등 지속적 관리(홍보자료, 단체브로셔 등)

8. 교통카드 문제점 및 대응 보고의 건

1). 배경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한꿈이카드(교통카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교통카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의회 임시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민명수 공동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꿈이카드 추진협의회』 개별 서면심의를 통해 심의를 요청해옴.

2). 문제점

- 해명없이 시행시기 연기 / 지난해 10월 -> 올 3월 -> 7월 -> 10월1일로 연기
- 추진협의회에서 지적된 선후불 교통카드 동시시행을 유보하고, 선불형 카드만 시행됨.
 - 후불형 카드 12월 또는 내년에 시행.
- 교통카드 시행을 기반으로 한 무료환승시스템 전면도입 해명없이 포기
 - 무료환승대상노선 / 외곽노선,순환노선,시청앞 환승정류장 통과노선 5개 뿐
- 업체와의 이견으로 참여업체만 우선시행 / 경익운수 교통카드 참여않고 있음.
 - 시민불편 불가피함.
 - 대전시는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밝히지 않고 있음.
- 기존 관행에 의거한 할인금액 결정 / 학생 할인에서 청소년 할인으로 변경되어야 함.
- 예치금 대신 카드제작 수수료 징수 / 애초 보고시 징수하지 않기로 했으나 징수기로 결정.
- 실명으로 발급된 교통카드(전자화폐의 경우) 분실시 책임소재 당사자에게 부과
- 마을버스 교통카드 도입시기 미정

3). 대응경과

- 대중교통과장에게 시민불편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공식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함.
- 교통카드 추진개요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구체적 대응방안 준비

9. 기타 승인 요청의 건

- 사무처장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분권연구특위 심사보조위원 취임 승인
- 사무처장 김제선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야간) 강의 승인

10. 기타 사무처 활동보고

1). 사무실 정리정돈 / 8월 27일

2). CMS 회원가입 강제화 보고의 건

- 보고내용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가입서 작성 회원가입시 CMS를 강제화하되, 홈페이지상

회원가입자수가 매월 5-10여명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전참여자치연대 회원가입』과 『기존회원 등록』 두 종류로 구분기로 함.

3). 사무실 이전 검토의 건

- 검토내용 / 보문감리교회(당회장 김용우 지도위원) 선화동 이전에 맞추어 별관 지하1층, 지상3층(각 35평) 중 1개층 임대를 문의중에 있습니다. 이전 추진여부에 대하여 검토,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3천만원

· 현재 사무실 월 임대관리비 / 월 853,600원, 연간 합산액 10,243,200원

4). 활동가협의회, 연봉입주단체 활동가 교육

- 교재 제2권을 중심으로 토요일 9시~1시(4시간), 환경연합에서 학습기로 함.

- 학습기간 동안 사무실 토요일 당직은 금홍섭과 박상우가 대체근무기로 함.

- 1차 학습모임이 끝난후 전체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하며, 전체워크숍에 국처장의 참석을 통해 자체학습 테두리를 조금 더 넓혀나가주기를 요청해옴.

5). 법원 사법모니터 요원, 모니터보고서 전달(유성미 국장)

- 모니터 결과 여전히 사무적이고 법률용어의 어려움, 건물동선의 난이함이 지적됨.

- 앞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할 계획.

6). Seven Habit 프로그램 참가

- 9/24~26 유성미, 10/22~24 금홍섭, 11/26~28 박상우

- 특이한 일정이 없는 한 위 일정대로 참석할 예정.

I 안건토의

1. 국민연금 토론회 개최의 건

- 제안내용 / 파행적 국민연금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대전연대 주최로 개최키로하고 복지포럼이 주관하여 추진키로 대전연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내용을 검토한후 세부사업 추진을 복지포럼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인식 /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급여율, 보험료율 조정이 아니라 국민 불신을 해소키 위한 전면적 연금관련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 개정안은 현행 연금의 소득대체율 60%를 내년에 55%, 2008년에 50%로 인하하는 안으로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은 사실상 포기하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더라도, 2070년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하여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30% 정도에 머물며, 금액으로는 약 40만원에 불과하다.

· 보험료도 문제다. 개정법안에 의하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15.9%까지 인상할 계획이나, 연금재정을 오로지 가입자의 보험료로만 메우려 한다는 점과 게다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2009년까지 보험료를 조정이 금지되어 있어 다음 재정추계년도인 2008년에 보험료율을 조정해도 늦지 않으나, 정부는 성급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이번 개정법안에서 못박으려 하고 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연금 관련제도를 대폭 개혁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작업이다.

· 진정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겨야 될 내용

- 첫째, 취약계층 가입자를 위하여 국고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 둘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과정에서 가입자의 대표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셋째,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실제로 포괄할 수있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넷째, 실업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 다섯째, 출산장려제도,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한 출산율 상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토론회 필요성 / 우선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 및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모색을 위한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토론회 개요

- 주제 /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대전시민토론회
- 일시 / 2003년 9월 19일(금) 오후 2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또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 주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 후원 / CMB충청방송, 대전광역시

2 대전시 예산편성 토론회 기획안 검토의 건

- 제안내용 / 참가범위가 대폭 축소된채 이루어진 대전광역시 주최 예산편성 토론회는 활력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후문이며, 대전연대 주최 토론회 추진도 실무력 제약 등 실효성문제가 제기되어 관심있는 단체들간에 협의하여 추진기로 한바, 정책위 주관의 예산편성 토론회 추진을 검토의결 하여 주십시오.

- 토론회 개요 /

- 제목 / 2004년 대전광역시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 일시 / 9월 말경 또는 10월
- 주제발제 / 2004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평가 및 예산편성 평가(정책위원 1인)
2001년 대전광역시 재정계획을 중심으로(대전시 예산담당관)
- 토 론 / 대전광역시의회(산업건설위, 행정자치위, 교육사회위 각 1인씩)
복지포럼 1인, 환경분야 1인, 도시계획 1인, 행정분야 1인

- 토론회 진행방법

- i) 공중파 방송 공동추진 / 토론분야대폭 축소 및 토론포맷 방송용으로 전환필요
- ii) 케이블방송 공동추진
- iii) 자체 및 관련단체 공동추진

- 참고자료 / 2004년 대전시 주요업무 평가(8.22, 대전시예산편성 토론회 김제선 처장발표문)

▲주민참여예산제의 적극 도입준비

예산편성 요구 제안 접수, 편성여부 심의 위원회 통해 반영여부 결정

나아가 수요의 폭증과 재원의 부족을 시민들의 직접 선택을 통해 해결나가는 과정추진 필요

이를 위해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사전(자동)정보공개의 대폭 확대, 기록물관리조례의 제정을 통한 주요회의의 속기록식의 보존이 필요.

▲복식부기도입 계기 성과측정회계제도 동시 마련 추진

경영평가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성과평가지표의 개발을 추진한 것을 평가하며 나아가 복식부기의 도입을 계기로 성과측정 회계제도의 기반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함.

재정민주주의 확충은 효율성의 제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복식부기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재정분석전산시스템을 재개발하여 복잡한 재정에 대한 시민이해를 대폭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함. 매우 복잡한 재정운영 상황에 비추어 산반적인 재정 분석과 이해가 종합적 재정관리 및 예산 운영시양의 확대 등 정책결정의 판단 준거를 마련키 어렵게하고 있음.

예산과 결산의 분리현상의 극복, 사업별투자의 분석 및 시계열별 추진 점검이 가능토록하는 한편 일반 경상지 출과 달리 이루어지는 자본투자 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되어야함. 기존 행자부의 10대 재정지표 이외에 재정상태, 재정운용, 사업별, 경영성과분석이 가능토록 회계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재정분석 제도 시급 도입 필요함.

성과평가지표 개발의 결과를 알지 못하나 평가기본법상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업임으로 관리능력, 시책부문, 주민만족도분야별로 객관적인 지표가 개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하는 한편 사회지표의 목표와 달성율이 매년 공표 되도록하여야 함.

▲체계적인 복지투자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착수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과제는 주민 삶의 질 보장에 있음.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 사회복지기초육구조사, 대전시 보건의료지표설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예산평가와 연동하여 마련토록 추진이 필요함

▲반부패시범도시 추진 필요

전임시장 재직중의 일이기는 하나 간부급에서부터 일선 현업 부서까지 오직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은 거액의 송사에서 패소를 거듭하고 있음. 부패방지위원회가 제안하는 반부패 시범도시로 대전을 만들어나가는 결단 필요. 아울러 수많은 감사 실시 결과의 인터넷공개 의무화,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을 통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직접조사권과 시정권고권권을 갖는 외부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시민고충처리관(옴브즈만)의 국실별 위촉도 추진하길 바람.

▲신행정수도의 중심도시 대책

신행정수도의 건설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주민삶의 질 제고의 전기로 마련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필요. 모든일은 좋은 면이 있는가하면 나쁜면도 있기마련인바 대체로 연계 발전계획의 수립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발전동력화이외에도 심각한 부동산 가격 앙등과 거래부진, 대전인 근지역 후보지 선정시 부동산 거품의 제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의 우려를 해소할 종합 대책을 마련함이 시급히 필요. 동시에 참여정부의 분권과 분산에 대전지역이 신행정수도 예정지 임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전의 메리트를 심분활용 각종 기관의 유치에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어떠한 형태의 경쟁에 대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적극 행정을 준비하길 바람.

▲3대 현안 사업관련

-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 평가하며 재래시장발전종합계획을 재래시장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차원에서 마련하고 재래시장현대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일부 언발 오줌누기식 재래시장 현대화와 재래시장의 성장 잠재력의 이전과 수탈 방식의 신규대형개발이 아니라 현재의 정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함.

- 대형할인매장이 과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는바 특히 대형할인 매장들이 현지 법인인 아니고 수익이 전액 외지로 유출되는 등 지역경제의 위축 요인이되고 교통혼잡 등 지역의 공적 비용은 증가시키는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교통환경재해종합영향평가 조례를 법상 최저기준 이상으로 설정하고 용역수행기관의 선정에 사업 시공자가 선정하는 현행제도를 공익적 기관이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발주토록 조례를 제정 근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람.

- 대중교통의 근본혁신 관련 광역급행버스를 통한 도시대중교통의 해결책이 제시된바 현재 진행중인 경전철 용역이 타당성 비교를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닌 별도 타당성 조사를 발주함이 필요. 경전철 용역의 수임기관이 교통종합연구기관이기는 하나 경전철 담당 부서가 철도담당으로 광역급행버스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

재하여, 일부 용역참가자는 전문성도 없이 왜곡된 표절을 통해 광역급행버스시스템이 타당성을 부인하는 속에서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제대로된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함. 최종결정에 앞서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우수성이 제기된 광역급행교통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

-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관련 도시교통의 대표적 지역혁신 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물지각한 예산 삭감에 맞서 강력한 예산 확보투쟁을 당부하고자함. 기획예산처의 삭감에 주저않지 말고 지역국회의회, 행자부, 균형발전위, 청와대에 지역혁신을 돕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주장하길 바람.

▲ 시민생활에 밀착한 소프트 웨어적 투자 노력 필요

- 생활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별도로 수립 다양한 레저욕구를 수용하고 집중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길 바람. 이는 녹색도시 조성과 연관되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엘리트 체육이라할 수 있는 시티즌에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중지원을 하면서 생활체육은 과소투자되고 있음.

- 청소년보호육성5개년계획이 수립과 이를 통한 공공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 및 가출 청소년 쉼터의 확대 신설 및 지원 확대, 아동학대보호센터 별도 마련을 추진 아동학대 방지 노력 긴요. 아울러 청소년인권보호조례, 방과후 아동보육지원조례 등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길 바람.

- 정부의 공공도서관 6만명당 1개 건립 계획과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 도서관 건립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소액의 마을어린이 도서관 100개 건립 사업을 추진하길 바람.

- 예술의 전당을 통해 고급예술문화의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바 과학공원을 활용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설치 유망 지역작가 및 주민의 예술 교육과 체험 학습을 지원하길 바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65세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사업 예산 편성 피요자 전체에 지원토록 예산 편성 바람.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공공시설로 충족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병인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노인요양수요에 부응하기 바람.

- 지역민 암관리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주요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체계 구축 예산 편성 바람

- 지방행정기록보존소는 소액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표창만 받고 추진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바람. 중앙정부의 지정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한다는 식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공공기록물박물관 같은 사업에 우선권을 얻는 적극적 접근이 아쉬움.

- 자치적 주민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등의 소비자협동조합 등 공동체운동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활성화 계획을 수립 자치적 공동체를 통해 대전사랑운동을 아래로부터 활성화하길 바람.

▲ 경륜장 관련

예상과 달리 사업의 조기 승인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서는 안됨. 모주민대책위의 대표가 산성복지관건립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그럴리는 없지만 시가 문화관광부에 새로운 유치민원을 위해 졸속으로 만들도록 개입했다면 개탄스러운 일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음. 꼭 필요하다면 체육회와 생체협 등 이미 건전한 유치활동을 벌이는 기관이 있음을 유의하길 바람.

▲ 운영비 민간보조 단체에 대한 독립적 심사기구 설립 운영

정책보조 국민운동단체와 공모사업 지원단체의 2중적 구분이 폐지 추세이며 따라서 경상적 운영경비의 지원에 대해 독립적인 심사제도를 즉각 도입하여야할 것임. 최근 모 국민운동단체의 회관 건립 부정과 관련 예산 책정의 밀실 편성 관행을 넘어서는 심사 필요. 임의보조 사업의 경우도 독립적 심사기관을 만들어 단체장에 대한 예산 지원의 압력에서 벗어나길 바람. 임의보조 정산의 투명성도 강화하는 노력기울이길 바람.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

지방분권대전선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치길 소망하며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대전광역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분권시대의 기본헌장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길 바람.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결단이 필요함.

▲의회도 예산 심의 및 각종 의정 활동에 앞서 시민 의견 청취토록 의회 사업비에 이를 반영토록하고 지방의원 명예직 조항의 삭제에 따른 세비의 지급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전문성 제고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복무가 가능한 적정방안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길 바람.

3. 기타안전

-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추가의 건 / 복지포럼 2인 예정
 - 이해영(한남대 사회복지학과 4년 재학중)
 -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1인
- 분권본부 염대형 간사, 4대보험 참여자치연대로 가입 승인의 건 추가
- 기타안전